



미야자키 국제 플라자 뉴스



<2008년 12월 제 33호>

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 플라자 〒880-0805 宮崎市橋通東 4-8-1
TEL : 0985-32-8457 FAX : 0985-32-8512 Homepage : <http://www.mif.or.jp> E-mail : miyainfo@mif.or.jp

● 연말연시 휴관일 공지

2008년 12월 28일(日)~2009년 1월 5일(月)은 연말연시 휴관일입니다.
2009년 1월 6일(火)부터 개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● 2009년 미야자키 아트페스티벌 「외국인이 본 미야자키」 작품전 응모작 모집

~테마 「미야자키의 인상, 이미지 등 미야자키에 관련된 모든 것」



(※ 주최측에 의해 테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, 전시되지 않을 수도 있음)

미야자키의 인상, 이미지 등 미야자키에 관련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,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의 출품작을 모집합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응모해주세요.

- ◇ 응모자격 : 미야자키에 거주하는 외국인
- ◇ 작품 : 사진,그림,스케치,시 등
- ◇ 크기 : 50cm×50cm까지 ※출품작의 갯수제한 없음
- ◇ 응모마감 : 12월 27일(土) ※마감일 이후 제출시 개별 상담요망
- ◇ 응모방법 : 우편발송, 내방, Email(비용은 자기부담)
- ※성명(후리가나기재),출신국가,직업,연락처(주소,TEL,Email),작품제목,소재,작품설명,전시방법(희망사항)을 기재
- ◇ 전시기간 : 2009년 1월 28일(水)~2월 7일(土) [개관시간 : 10:00~20:00 ※마지막 날은 16:00 시까지]
- ※아트 페스티벌 전시종료 후, 각 시정촌지역에서 순회전시를 할 예정입니다.
- ◇ 작품반환 : 2009년 4월까지 내방 또는 우편(착불)으로 반환
- ◇ 상장수여 : 입상자에게는 호화상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. 최우수상=1명, 우수상=2명, 특별상=1명
- ◇ 발표 : 1월 31일(土) 수상자 발표 및 상장수여식을 시행합니다. ◇ 응모 및 문의사항 : (재)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

● 외국인을 위한 생활·법률 상담회 ※무료 ※예약제

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·법률 상담회를 개최합니다. 비자, 재류자격 등 평소 생활하시면서 곤란을 겪으시는 일을 변호사, 행정서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
- ◇ 일시 : 2월 1일(日) 10:15~12:15 *일인당 상담은 30분까지
- ◇ 장소 : 카리노 미야자키 8층 가가에이트
- ◇ 후원 : 미야자키현 변호사회 미야자키현 행정서사회
- ◇ 사전 예약 : 예약이 필요합니다. 통역을 필요하신 분은 예약하실 때 미리 알려주세요.
- ◇ 신청 마감 : 1/27(火)
- ◇ 응모 및 문의사항 : (재)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

● 외국인 「일본어 발표회」 참가자 모집!

미야자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보지 않으시겠어요?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- ◇ 일시 : 2월 1일(日)
- ◇ 장소 : 카리노 미야자키 8층 극장
- ◇ 대상 : 현내에 거주중인 외국인
- ◇ 발표내용 : 「미야자키에 대한 생각」, 「미야자키에 살면서 느낀 것」 등 미야자키에 관한 것
- ◇ 부문 :
 - ① 초급 3분 이내의 스피치 (일본어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하 레벨)
 - ② 중급이상 5분 이내의 스피치 (레벨, 거주기간 제한 없음)
 ※우수 발표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됩니다.
- ◇ 응모 및 문의사항 : (재)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

● 제 4회 아주 가까운 세계 ~인도편~



인도 출신의 구르라자 무르티 씨와 부인 조티 씨가 인도에 대해 소개합니다. 사리(인도의 전통의상)를 입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. ※강좌는 일본어로 진행됩니다.

- ◇ 일시 : 12월 6일(土) 13:30~15:15 ※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
- ◇ 장소 : 카리노 미야자키 8층 다목적 A실
- ◇ 신청방법 : 성명,주소,전화번호,인도에 대해 알고싶은 것을 전화,Fax,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◇ 신청 및 문의사항 : 미야자키현국제교류협회



●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연습회 ※사전신청 불필요·참가비무료

일본인 불란티어 참가자들과 회화 및 일상생활표현을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,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주세요.

- ◇ 일시 : 매주 화요일·금요일 10:30~11:30
- ◇ 장소 : 카리노 미야자키 8층 미야자키현국제플라자 ◇ 문의사항 : (재)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
- ※2008년 연습회는 12월 19일(金)이 마지막입니다.2009년은 1월 6일(火) 부터 시작됩니다.

● **실행계획 발표회 · 토론회~ 아시아 지역의 종합적인 비소오염 대책~**

※ **입장무료 · 사전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**

- ◇ **주 최** : JICA·아시아 비소 네트워크 아시아 6개국에서 선발된 연구원들이 미야자키대학교를 거점으로 45일간, 비소대책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. 발표 후에는 JICA 와 미야자키대학교가 인도에서 시행하였던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중점으로 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 아시아지역의 비소오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, 국제협력에 흥미를 갖고 계시는 분,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발표는 영어로 진행됩니다.
- ◇ **일 시** : 12월 10일(水) 13:00~16:30
- ◇ **장 소** : 미야자키대학교 부속도서관 3층 시청각실



◇ **문의사항** : (재)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内 JICA 데스크 미야자키 [담당자:사토]

< 지역별 행사 소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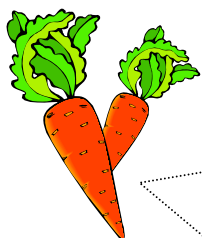
행 사	일 시	장 소	문 의 처
유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임 ~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~	• 12/13 (土) 13:00~ ※ 입장무료	미야자키 공립대학 교류센터	미야자키지역 유학생교류추진 협의회사무국 Tel:0985-58-7134
미야자키시주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연습회	• 11/26 (水), 12/4 (木), 12/11 (金), 12/19 (金) • 1/9 (金), 1/16 (金), 1/23 (金), 1/29 (木) 18:30~19:30 ※ 입장무료 · 사전신청제	미야자키시 시민플라자	미야자키시 국제교류협회 지역커뮤니티과 Tel : 0985-21-1719
크리스마스파티 in 노베오카	• 12/17 (水) 19:00~21:30 ※ 일품요리(2인분 가량)와 500엔 이내의 선물을 지참. 빨간색 또는 초록색 물건을 몸에 지니고 오세요. ※ 입장무료	노베오카보양원 체육관 (미도리가오카)	노베오카시 국제교류추진실 Tel:0982-22-7006 (담당자:가이)
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강좌 in 노베오카	• 12/4, 11, 18, 25 • 1/8, 15, 22, 29 ※ 참가비무료	노베오카시 사회교육센터	노베오카시 국제교류추진실 Tel:0982-22-7006 (담당자:가이)
아프리카를 지원하는 WINTER 자선 콘서트 개최	• 12/12 (金) 19:00~21:00 자선 티켓요금 : 1,000엔	기요타케정 문화회관 소홀	기요타케정 국제교류협회 Tel:0985-85-1111



12월의 이벤트



이 벤 트	일 시	장 소	문 의 처
항공자위대 뉴타바루 기지 항공제	• 12/7 (日) 8:30~15:00(예정) ※ 입장무료	항공자위대 뉴타바루기지 외 주변상공	항공자위대 뉴타바루 기지 TEL:0983-35-1121 (홍보반) ※ 일본어 대응
「일루미네이션 플라워 가든~ 빛의 정원」	• 12/11 (木)~1/12 (月) ※ 12/31, 1/1은 휴무 13:00~21:30 (일루미네이션 정등은 어두워지면 시작합니다) ※ 입장료: 어른 300엔, 초,중학생 150엔	후로란테 미야자키	후로란테 미야자키 TEL:0985-23-1510
크리스마스 오르간 콘서트	• 12/21 (日) 14:00 시작 (13:00 입장) 전좌석지정제: 어른 2000엔 커플석 4000엔	메디킷트 현민문화 센터 아이작 스탠 홀	미야자키현립예술극장 TEL:0985-28-3210



안녕하세요. 미야자키현 국제교류원 김민진입니다.
어느새 2008년도 한달밖에 안남았네요. 2008년은 여러분들께 어떤 해였는지 궁금합니다.
저는 2008년초에 그 힘들다는 취업난을 겪다가 봄에는 미야자키에 오게 되고, 그 후에는 새로운 일과 생활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. 처음에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먹고 쉬는 것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, 요즘에는 여유가 생겨서 그림도 배우러 다닌답니다.
얼마전에는 올해에 무엇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았는데 그다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. 그런데 얼마전에 참가했던 아오시마 캠프에서 한 초등학생이 “선생님 덕분에 한국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 라고 말해주어서 눈물나게 기뻐했습니다.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는가 봅니다. 2008년, 보람있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